

野, 흥종학 임명 반발에 얼어붙은 정국

예산 삭감 투쟁 응수·주요 입법 강력 대응 예고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공조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흥종학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예산·입법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야당 측은 대대적인 예산 삭감 투쟁으로 응수함은 물론 여권의 주요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다.

우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임명 강행을 ‘협치 중시 선언’으로 규정하고 예산정국에서 삭감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세웠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 정치와 협치 파괴 선언으로 규정하며 국민과 함께 원내외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원 수석대변인은 “인사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협치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예산·법안 심사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앞으로 있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청와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당도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임명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협치 포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근래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파다한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그토록 여의도 출장소라 비판했던 구태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표면적으로 홍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안 및 입법 처리 연계 원칙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이번 임명 강행에 비판적이라는 ‘예산 삭감 투쟁’과 ‘입법 비협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제 1야당과 공조 하에 향후 예산 및 입법정국을 강경 모드로 끌고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바른정당 역시 임명 강행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걸음도 못나간 ‘공수처’

한국당, 다시 ‘불가’ 당론…검정수사권 조정은 긍정적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날 조건부로 공수처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한국당이 다시 공수처 불가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이 각각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설명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다음 소위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관련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김진태·여상규·윤상직 의원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각론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더 이상의 논의를 하

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실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어줄 수는 없다. 공수처 설치제도의 문제여서 검찰이 아무리 밟아도 해도 받아들이 수 없다”며 “일단 만들어 놓으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야는 다음 소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다시 논의할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당 입장이 완강해 추가 논의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야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권한을 배분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혐의 부인한 전병헌 영장 고심하는 검찰 17시간 조사 마쳐

검찰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을 상대로 17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20일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전 전 수석은 21일 오전 3시 35분께 검찰 청사를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와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은 전 전 수석이 처음이다.

그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롯데 후원금 외에도 전 전 수석이 협회 핵심 인사들과 공모해 협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지난 5월 청와대 정부수석에 임명돼 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고서도 조씨로부터 협회 현황을 보고받는 등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수집한 증거 자료와 전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병헌, 고강도 조사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1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새 정부수석 내부 인사 기용 유력

진성준·한병도·백원우·신정훈 비서관 발탁 거론

전병헌 전 정부수석의 후임에 청와대 내부 인사를 기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내부 인사 가운데 정치권 출신을 정부수석에 기용한다는 것은 야권과의 협치보다는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회 상황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선발투수를 데려다 쓰기보다 당장 구원투수나 몸이 풀려 있는

사람이 가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부에서 (정부수석 후임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해석해도 무방해 보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 업무가 중요하고 정부수석 업무가 그런(대 국회) 업무가 많으니 전직 정치인, 의원 중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수석실이 아닌 다른 수석실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수석실에서만 해야 하나 싶다”며 “비서실장이 다 생각하

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선 원칙이 적용되면 정부수석실의 진성준 정부기획비서관, 그리고 국회와 소통업무를 담당해온 한병도 정부비서관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신정훈 농어업 비서관의 감차 발탁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을 제외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중 전직 의원 출신은 정부수석실의 진성준 정부기획비서관·한병도 정부비서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회수석실의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경제수석실의 신정훈 농어업비서관, 문민외 과학기술보좌관, 박수현 대변인 등 7명이다. /임동욱기자 tuim@

여야 때아닌 역사 논쟁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예산에 건국절 논란 일 듯

여야의 역사관 차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나타났다.

21일 예결특위 조정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2019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일 뿐 아니라 현재 한창 역사학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핫이슈인 건국절 논란의 중심 사업”이라며 “국민 사이에 건국절과 관련한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50여원을 떼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3.1운동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순수한 의도보다는 건국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국론통합이 된다고 보느냐”며 거듭 물었다.

여권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보고 있지만 일부 보수진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국절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호덕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왜곡된 정파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업은 제목 그대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어디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느냐, 어느 국민이 3·1 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임시정부 100주년이면 국론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념 문제가 나와서는 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사범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 ~ 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A.)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